

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 일시 | 2023. 1. 18.(수) | | |
| 담당 부서 | 광역교통정책국 | 책임자 | 과 장 김희천 (044-201-5080) |
| | 광역교통경제과 | 담당자 | 사무관 박태현 (044-201-5082) |
| 보도일시 | 2023년 1월 1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023. 1. 18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| |

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

- 공공·민관 협력 「전국 MaaS 시범사업」 추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이성해, 이하 대광위)가 전국 단위 대국민 MaaS* 서비스를 위한 민·관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.

*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함으로써 ❶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❷ 최적경로 안내, ❸ 예약, ❹ 결제 등 제공(Mobility as a Servic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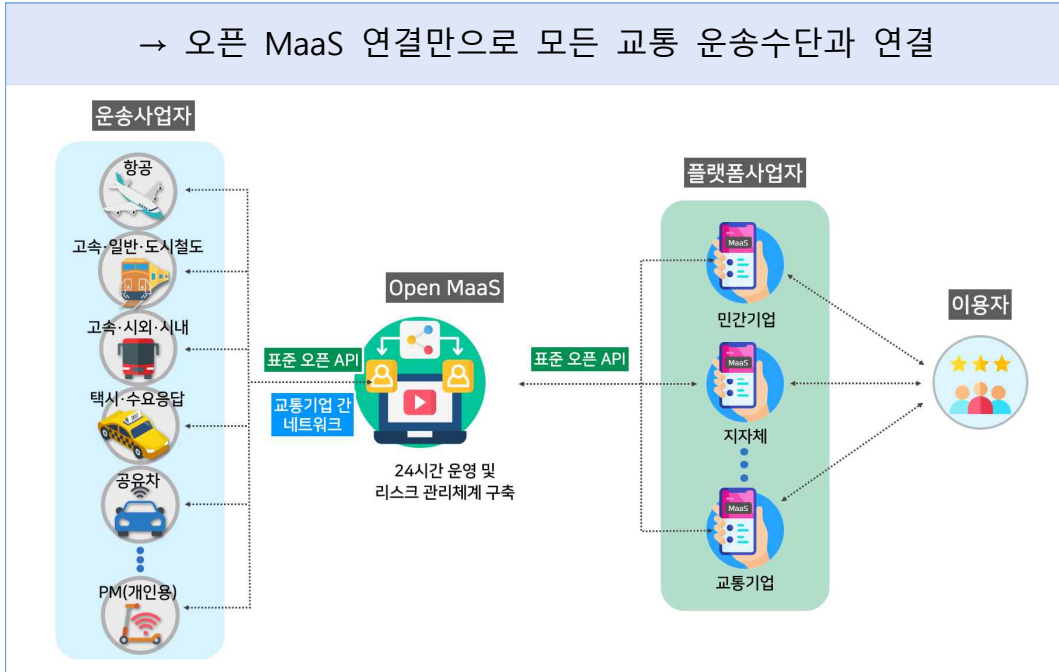
□ 현재는 이동 시 스마트폰으로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최적경로를 확인한 뒤 본인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각각 예약,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(이하 앱)이 달라 앱을 여러 번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.

○ 하지만, 전국 단위 MaaS가 실현되면 각기 다른 교통수단 앱을 통해 제공되던 경로 검색, 예약, 결제 서비스가 하나의 앱에서 구현되며, 이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결합·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 미래의 MaaS 이용을 통한 예상 기대효과 >

- [예시1 : 선택권 확대] 직장인 P씨는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철도 앱을 열고 빈 좌석 예매를 위하여 새로고침을 계속 하였으나, MaaS 앱 하나로 대체 노선이 있는 고속버스를 검색·이용하고 자동 예약·대기 중인 택시를 통해 30분 일찍 도착
- [예시2 : 통합 호출] 대학생 A씨는 밤늦게 택시를 잡기 위해 매번 개별 택시 앱에 접속하여 가까스로 택시를 잡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, MaaS 앱 하나로 택시 통합 호출 기능을 이용하여 한 번에 택시를 호출한 후, 안심 귀가
- [예시3 : 통합 마일리지] 평소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잘 활용하는 주부 Y씨는 개별 교통 마일리지 활용이 불편했으나, MaaS 앱 하나로 항공, 철도, 공유차 등 교통 이용 할인부터 메신저 이모티콘 구매까지 통합 마일리지로 간편하게 사용

- MaaS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교통수단 간의 데이터 연계가 핵심이므로 대광위는 다양한 교통수단 데이터가 한데 모이고 공유되는 기반을(이하 오픈 MaaS) 마련할 계획이다.



- 이를 위해,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픈 MaaS를 구축·운영하는 중계 사업자를 공모하여 관련 데이터 표준 및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.

- 아울러, 통합된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플랫폼 사업자를 공모하여 연내 전국 MaaS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.

* (일정) 공고(1.19~2.17) → 선정(2월末) → 개발(3월~) → 전국 MaaS 앱 출시(12월)

- 전국 단위 MaaS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개별 교통수단으로 구분되어 이동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매끄럽게 연결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정액제, 구독요금제와 같이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.

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교통 서비스가 통합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”이라며, “관광, 숙박, 콘텐츠 등 타분야와의 연계로도 이어져 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□ 추진배경

- 미래 교통은 대중교통, PM, UAM, DRT 등 모든 교통수단을 모두 아우르는 MaaS로 수렴 예상되나, 개별 데이터 연계에 한계

□ 추진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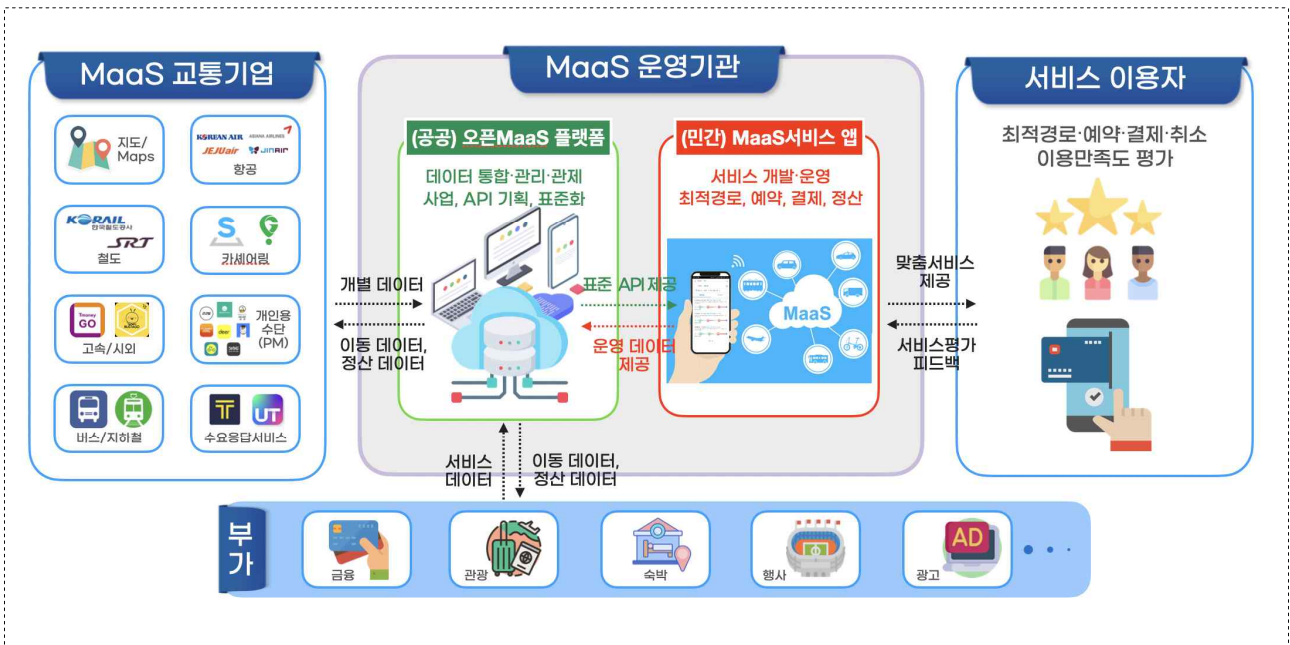
① 통합·중계 시스템 구축(가칭 “오픈 MaaS”)

- 오픈 MaaS 구축기관 공모·선정(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공모)
- 구축 후 대광위 주도 下, 고속·일반철도, 고속·시외버스, 항공, 해운, 택시, PM, DRT, 공유차 등 운송사업자 데이터 연계 추진(API 제공)

② MaaS 플랫폼 사업자 선정

- 기술 협력 파트너社로서 App을 구축할 민간 플랫폼社 공모·선정
- 중계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모든 운송기관의 노선정보 및 예·발매, 결제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구현하여 MaaS 서비스 제공

< 전국 MaaS 개념도 >



□ MaaS는 서비스 연결·통합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

○ 현재 상용화 수준은 낮은 단계이나 시장규모는 빠른 성장 전망*

* 글로벌 시장은 '30년 1.6조 달러 규모로 연평균 25% 성장 전망(PWC, '17년)

| 단계 | 분류명 | 개요 | 예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0 | 연계가 없는 상태 | 개별 이동 수단의 서비스가 개별 어플로 제공 | 코레일톡(KTX) 타미-G(고속버스) |
| 1 | 정보의 연계, 호환 | 최적 경로 및 이용수단, 요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 | 카카오맵, 네이버지도 |
| 2 | 검색, 예약·결제 의 호환, 통합 | 여러 교통수단의 예약·결제 등을 단일 앱에서 해결 | 카카오T 독일 Moovel |
| 3 | 서비스 구현 단계 | 구독 서비스 등 MaaS 서비스 이용 가능 | 스웨덴 Ubigo 핀란드 Whim |
| 4 | 정책의 통합 | 도시계획 등 정책간 통합으로 사회적 목표 달성 | (현재 없음) |

□ 국내·외 모두 상용화 수준의 3단계 이상의 MaaS 구현에는 미흡

○ (해외) 핀란드의 Whim을 필두로 확산 중이나, 아직 보편적 교통 서비스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제한되거나 시범사업인 단계

※ MaaS가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대중교통 인프라의 질이 낮고 요금이 비싸 시민 불만이 크기 때문에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 한계 보완 관점으로 도입

- 다만, 미국, EU* 등은 범정부 단위로 MaaS 프로젝트 추진 중

* (미국) 5개 정부기관 SUMC-MaaS (EU) Horizon 2020 'MaaS4EU' 프로젝트 추진

○ (국내) MaaS 관련 기업은 약 10개사 내외로 다양

- 국내 기술 수준은 충분하나, 퍼스트·라스트마일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MaaS가 아닌 일부 수단·지역별로 분절되어 확대 한계

- 공공은 MaaS를 위한 데이터를 통합·중계하고 민간은 데이터 기반으로 수익상품 개발 등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 필요